

# 평화당·정의당 ‘제4 교섭단체’ 이번주 출범

### 막바지 실무협상...타결 임박 국회 역학구조도 변혁 예고 ‘범진보’ 전선...‘범보수’와 균형 추경 등 ‘캐스팅보트’ 전망 개헌 정국 변수로도 부상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주 공동교섭단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내 역학 구조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교섭단체가 정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개헌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임박한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5일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하는 20석 규모의 새 교섭단체가 등장하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4번째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그동안 3교섭단체 체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의 ‘범(凡)보수’로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범진보’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형식상 원내 협의 테이블은 진보와 보수 2대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같은 역학구조 변화로 민주당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및 산적한 입법과제 처리에 잠재적 우군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평화당 지방선거 필승대회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가 열려 조배숙(오른쪽 두번째) 대표 등 지도부가 당원들 지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의 새 교섭단체가 무조건 여당의 편을 들지 않고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에 집중하며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이 지역 기반인 평화당은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광주에 공장을 둔 금호타이어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추경 통과에 협조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핵심 지지층 가운데 노동계가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노동 현안 등의 이슈를 부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새 교섭단체는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불을 붙게 됐다.

이미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히 한국당에 ‘총리 국회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선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제4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새 교섭단체가 개헌을 제외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 이들의 힘이 필요한 여당이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선서 2번 1% 못얻으면 정당등록 취소

### 헌정특위 소위 합의...군소정당 반발 가능성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소위원회가 총선에 2번 참여해 2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득표율을 1% 이상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5일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정치개혁 소위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은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정당등록 취소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은 2012년 5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냈고, 현재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기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결정 후 4년여 만에 열린 법률안 심사에서는 정당 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박주민 의원이 총선 횡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고 득표율 커트라인을 2%에서 1%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안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정개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대로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정당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던 원의 군소정당들은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따른 법 개정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반발

### 홍준표 “장외투쟁 검토”...김성태 “4당 공동대응 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반발을 이어가면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소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방선거용 관계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정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발의 이후 고조될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당이 이번 주 자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자체 개헌안 준비 작업에 돌입해 대국민토론회 등을 열었으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라는 큰 틀 이외에 구체적인 개헌안을 낸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당으로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개헌안 공개에 나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6·13 선거 현장

### 전남지사 후보

#### 신정훈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강진군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전남택시연합회 총회에서 “민선 4기 나주시장 재임시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목석고을순환버스가 전남 대표 교통약자 정책인 ‘100원택시’로 발전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객선 준공영제’를 공약했는데 안전하게 다양한 노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정책 실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만채 “테마관광 육성해 외국 관광객 유치”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25일 “장기 체류형 고부가가치 테마관광을 육성하는 등 전남관광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교육감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남약산도사에서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2월 중국인 입국자는 34만53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5% 감소했다”며 “정치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전남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명품 자연·문화와 연계한 IT(정보기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으로 장기체류형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재방문 유도를 통한 전남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수 “고흥, 통일우주항공 특구 추진”



이성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우주항공 중심 고흥을 통일우주항공 특구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후보는 민중당 특별공약으로 나로우주센터 준공 10년을 맞아 고흥우주항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통 농어업 전업도시 고흥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어야 했다”며 “고흥을 통일우주항공특구로 추진해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교육감 후보

#### 이정선, 광주 학교체육 종합대책 발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기초 체력과 건강 증진뿐 아니라 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등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체육회관에 자리잡은 광주스포츠과학센터를 찾아 ▲학교체육종합지원센터 설치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스포츠 힐링캠프’ 운영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 확대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스포츠 클럽’ 확대 ▲체육영재 발굴프로그램 운영 등 광주교육 학교체육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정욱·김형호 기자 jw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